



베트남의 통상전략과 시사점

개혁개방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외개방 행보를 보여온 베트남은 지난해 TPP, EU와의 FTA 타결에 이어 올해 EAEU와 FTA를 발효하면서 세계 경제통합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다. 향후 제3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베트남의 FTA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현지투자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미 대선 결과의 영향으로 TPP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점은 베트남 수출환경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과 FTA를 체결한 주요 선진국들은 협정을 통해 베트남 내 노동조합 설립, 파업 관련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베트남의 최대투자국인 한국에 미칠 영향도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은 관련 제도 및 고용환경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기지 확보 차원을 넘어서 약 1억 명의 인구에 25세 이하 인구 비중이 60%에 달하는 젊은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진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01.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 최근 베트남은 미국, EU, EA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을 통해 우호적인 대외 통상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베트남은 지난해 TPP, 베트남·EU FTA를 타결하고 AEC(아세안경제공동체)를 출범 하였으며 올해 베트남·EAEU FTA를 발효하여 단기간에 세계 주요 경제권을 아우르는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

베트남의 FTA 추진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타결 및 서명)	협상 중	검토 중
베트남 단독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 '95) → AEC출범(아세안경제공동체, '15.12), 일본('09.10), 칠레('14.1), 한국('15.12), EAEU('16.10)	EU ('15.12.서명, '18년 발효예정), TPP('16.4.서명)	EFTA, 이스라엘	FTAAP
ASEAN 차원	중국('05), 일본('08.12), 한국('07.6), 인도('10.1), 호주뉴질랜드('10.1)	-	홍콩, RCEP, EU(중단)	-

주 : EAEU(유라시아경제연합)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 관세동맹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주요국 2015년 FTA 추진 현황과 2016년 전망,'('16.3.)

● FTA를 통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수한 대외시장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베트남 경제는 가파른 수출 성장세를 시현하며 최근 5~6%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 '86년 도이머이(Doi Moi) 정책 도입 이후 저임금노동력을 기반으로 섬유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베트남전 이후 국제 사회 고립을 극복하고 세계경제로 편입

* 도이머이(Doi Moi) : '새롭게 한다', '쇄신'의 뜻을 지닌 베트남어로 시장경제체제를 수용한 베트남식 개혁·개방정책을 지칭함.

- 특히 미국과의 양자무역협정(BTA)이 발효되어 대미 수출관세율이 기존 40% 수준에서 평균 3%대로 크게 낮아지고*, WTO 가입과 FTA 추진을 계기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수출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를 수 있었음

* 베트남전 이후 미국의 對베트남 무역 금수조치 해제('94) 및 국교 정상화('95)에 이은 무역관계 정상화 조치임. 동 협정에서 미국은 對베트남 수입품에 최혜국세율(MFN)을 부여하는 정상 교역관계(NTR) 지위를 조건부(매년 갱신)로 부여하였고, '06년에 영구적으로 정상 교역관계 지위를 인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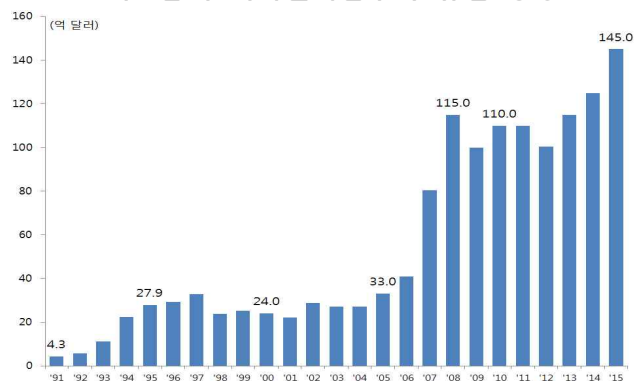
베트남의 對세계 수출 및 경제성장률 추이



●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 환경에 FTA로 미국, EU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접근성까지 높아지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 중국은 임금 상승 및 중간재 자급률 향상으로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이 축소되는 반면 베트남은 미국, EU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재수출 비중이 25.6%('95)에서 53.9%('11)까지 증가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동향



자료 : 베트남 통계청

국가별 수입 중간재의 재수출 비중

	(%)						
국가	'95	'00	'05	'08	'09	'10	'11
중국	58.3	57.8	59.0	53.9	49.1	48.9	47.2
베트남	25.6	39.4	43.8	47.2	44.5	49.1	53.9
태국	36.3	54.0	50.1	53.2	53.0	52.6	53.8
말레이시아	52.0	76.1	70.5	67.7	66.4	66.3	64.7
한국	32.6	43.8	46.2	51.3	51.1	52.3	53.7
멕시코	55.5	58.7	58.7	55.2	56.3	58.8	56.7

자료 : OECD TiVA

02. 베트남의 대외개방 추진 배경

- ◎ (초기여건)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한 것은 개혁·개방 초기에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과 산업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원조와 선진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임
 - 베트남전 종전('75)부터 개혁·개방 개시('86)까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산업기반을 확보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공업화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한 원조와 투자유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반면 비슷한 시기에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은 안정되고 튼튼한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로 인해 향진기업¹⁾이 주도하는 내향적 공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농업부문의 노동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해 나갈 수 있었음
 - 또한 베트남전과 캄보디아 분쟁을 거치며 서방 및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90년대부터 구소련의 원조까지 중단되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태였음
 - 이와 같은 여건에서 개혁·개방에 필요한 초기 자본과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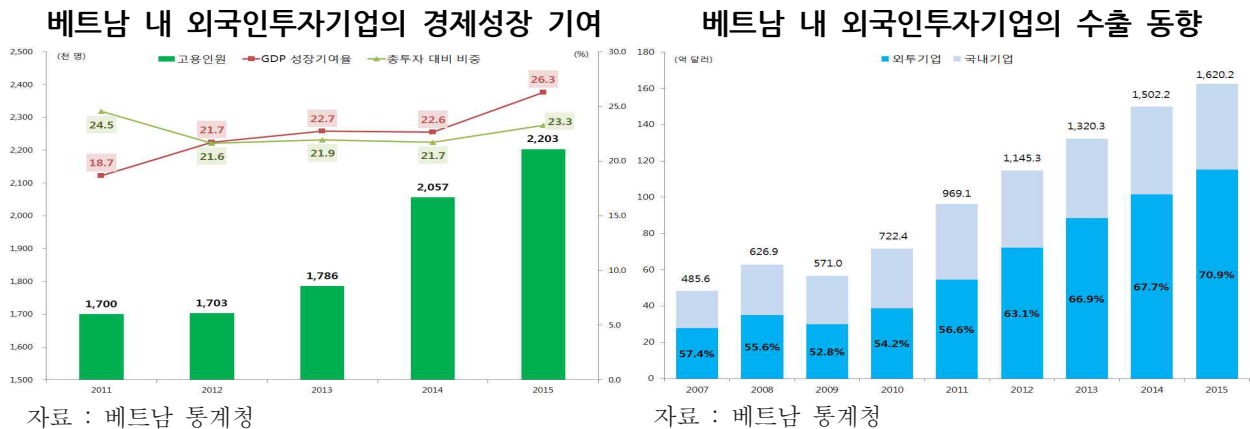
베트남과 중국의 개방 초기여건 비교

베트남	항목	중국
2007년	WTO 가입	2001년
중국 및 서방과의 관계 단절, 소련에 대한 높은 대외의존도	기존 대외관계	일본·유럽·미국과 대외관계 개선, 중소분쟁으로 소련에 대한 낮은 대외의존도
낮음 (오랜 전쟁으로 체제완성도 낮음)	사회주의 경제체제 완성도	높음 (자유경제 성장 강력억제)
베트남 전쟁 이후 산업기반 취약 → 내향적 공업화 불가능	산업기반	안정적 → 향진기업을 통한 내향적 공업화 가능
국제원조 수여, 해외투자 유치	대외개방 및 수출확대	해외투자 유치, 가공무역제도
서방과의 관계 회복, 해외시장 접근성 향상, 투자유치 확대	FTA 주요목적	以經促政(이경촉정 :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다)
5개국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말레이시아)	수출상위 5개국 중 FTA체결국(서명 포함)	2개국 (홍콩, 한국)

- ◎ (투자유치) 체제전환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베트남 경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확대되었으며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FTA가 적극 추진됨
 - 상품 수출 중 외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9%에 달하며 최근 경제성장, 고용, 총투자부문에서 외자기업의 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
 - 특히 외자기업이 베트남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휴대전화, 전기·전자 등 기술집약적 제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음

1) 농촌 지방정부 소유의 집단소유제 기업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 10여 년간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였음

- 외자기업의 주요 투자목적은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자 기업의 최종 진출시장인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시장과 FTA를 체결해 대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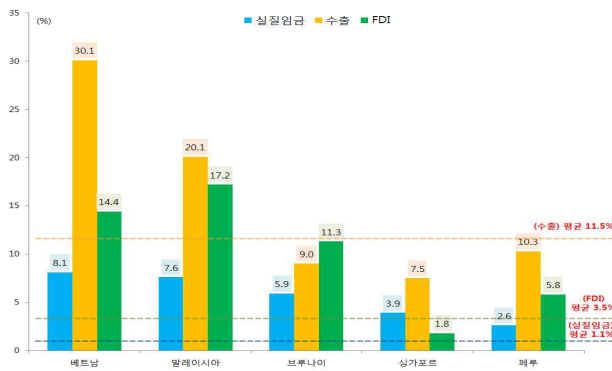
0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되겠지만 美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TPP 탈퇴 또는 발효논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중국에 비해 저렴한 임금과 안정된 정치환경에 베트남-EU FTA, RCEP으로 대외시장 접근성이 높아져 베트남을 시장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 유입은 유지될 전망
 - 베트남의 제2위 수출시장인 EU와 FTA를 발효할 경우, 베트남산 공산품 100%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 베트남의 국별 수출비중(% '15년 기준) : 미국 21%, EU 19%, ASEAN 11%, 중국 10%, 일본 9%, 한국 6%
- 그러나 TPP 활용을 목표로 추진되어온 글로벌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는 미국 신 행정부의 통상정책방향에 따라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미 수출기지로서 베트남이 갖는 위상도 약화될 것으로 보임
 - 당초 TPP에 규정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부품·소재 생산까지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TPP가 폐기될 경우 발효를 전제로 추진되어온 투자계획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음
 - * 베트남은 부품·소재 산업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해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부자재 조달선을 역내로 전환할 필요

- 특히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인 의류 수출 시 TPP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사(原絲)생산 대한 투자를 적극 검토해 온 역외국 기업들은 투자전략 재편이 요구됨

* TPP의 의류(HS61,62) 원산지기준은 원사규정(yarn forward)를 채택하여 TPP 역내에서 원사를 조달해야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TPP에 따른 회원국별 임금, 수출, FDI 변화



주 : 2017년 발효 가정, 2030년 미발효시 대비 변화율
자료 : PIIE(2016)

최근 베트남의 제도개혁 주요내용

항목	내용
통관단일창구 (싱글윈도우)	- 세관, 보건검역당국 등 관련 기관별 신고 절차를 온라인 창구에서 일괄 처리 가능 - 베트남 국가단일창구는 아세안단일창구와 연동 완료('15.9월)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 투자대상 업종 확대 -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간소화 - 국내외 투자자에게 동일한 법인설립방식을 적용 (외국지분 51% 이상 기업만 투자허가서를 추가로 발급)
법인세 인하	25%('13) → 22%('15) → 20%('16)

● 우리 섬유 기업들도 베트남이 체결한 FTA 내 원산지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TPP활용을 위해 마련한 기존의 투자전략을 조정할 필요

- 베트남-EU FTA는 한국산 직물에 대해 원산지 누적조항²⁾을 적용해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도 EU 수출시 특혜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반면 TP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TPP 역내에서 원사가 생산³⁾되어야 하므로 기업 차원의 베트남 현지 투자 또는 TPP 가입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신 행정부의 TPP에 대한 입장에 맞춰 투자전략을 수립·폐기할 필요

섬유산업의 TPP 및 베트남-EU FTA 활용 예시



주 : TPP는 미국을 포함한 발효를 가정하였음

2) 베트남-EU FTA 협정문 Chapter4 Article 3, Cumulation of Origin

3) TPP 협정문 Chapter3 Article 3.10, Accum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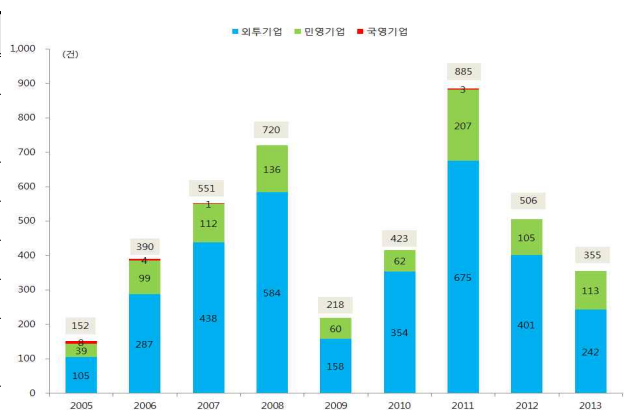
- (고용환경 변화) 한편 베트남이 선진국과의 무역협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임금, 노조와 관련된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EU FTA는 국제노동기구(ILO)의 1998년 기본협약 8가지를 준수하도록 명문화했으며, 베트남이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및 노동관계 강화계획’은 이보다 구체적으로 노동관련 국제기준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등록이 자율화되고 복수 노동조합도 설립될 수 있게 되며, 파업권이 보장되고 동급 타 노조와의 연대파업도 가능해짐
- 베트남은 그동안 개별근로자의 산발적인 저항이 파업의 주를 이루는 등 노동조합의 역할이 자리 잡지 못했으나 향후 협정 이행 과정에서 노사관계가 재정립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음
-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향후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파업, 임금인상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베트남 내 외자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파업 빈도수가 국영기업과 민영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향후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국내법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법규를 철저히 숙지·준수하는 한편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여 사전에 노사분규를 방지하는 체계 마련이 중요함

1998년 ILO 기본협약과 베트남 비준 현황

항목	비준연도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x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비준x
제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07
제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	비준x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03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00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근로자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	'97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97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6.5.)

베트남 내 기업의 파업 동향



자료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 (내수시장 진출)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소득 향상, 높은 젊은 인구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내수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높은 수준임

- 베트남 1인당 GDP는 2,111달러(명목기준, 2015)로 아직 낮은 수준이나 최근 5년간 연평균 9.6%씩 성장하고 있으며, 약 9,200만의 인구 가운데 25세 이하 인구비중이 60%에 달하는 젊은 소비층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베트남 내수시장을 겨냥한 주요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베트남 내 유통망을 확보하고 소비재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 주요 투자국인 일본은 90년대 초기부터 내수시장에 진출하였고, 인접국인 태국도 최근 M&A를 통해 본격적으로 유통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음
- * 태국의 Berli Jucker社は 베트남의 4대 유통사인 독일계 메트로社를 2014년 8월 인수하였으며, 그 외에도 전자유통체인, 유제품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인수·합병하고 있음
-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단발성 대규모 투자 위주전략을 수행해온 한국은 내수 시장 진출 측면에서 후발주자이므로 소비시장이 성숙 단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시장 진출에 나서야 할 것임

04. 결론

- 최근 베트남이 미국, EU, EA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연이어 체결하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음
- 저임금 노동력에 우수한 대외시장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경제는 5~6%대의 안정적 성장세를 시현
- 베트남 경제에서 수출 및 외국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외개방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이 체결한 FTA를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도 유지될 전망
- 그러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TPP가 폐기 또는 장기표류될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미 수출기로서 베트남의 위상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베트남이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무역협정이 요구하는 국제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임금, 노조와 관련된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됨
- 한편 가파른 경제성장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고 25세 이하 인구 비중이 60%에 달하는 젊은 내수층을 선점할 수 있도록 생산기지 확보 차원을 넘어선 내수시장 진출 전략 검토가 필요함